은닉된 도난 성보 30년 만에 '제자리로'

조계종 · 서울 지수대, 불교문화재 32점 회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에서 도난돼 행방을 알 수 없던 불교 성보문화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와 협력해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도난된 뒤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해당 도난 성보문화재는 모두 前사립박물관장 A씨의 소유로 그는 불화 2점을 경매에 출품했다. 조계종은 올해 1월 13일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해 경매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경매에 출품된 불화가 도난됐던 포항 보경사 불화임을 확인해 이를 지수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지수대는 경매사에 등재된 도난 불교문화재의 압수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수대는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9일 조계종 문화재 담당자와 함께 은닉처를 확인하고, 이 중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임을 확인한 16건 32점을 즉시 회수했다.

장기간 전문적 보존시설이 아닌 곳에 은닉돼 있던만큼 보존 상태는 최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화의 경우 경화(硬化, 딱딱하게 굳음)로 인해 제대로 펼 수조차 없거나 채색이 박락(剝落, 떨어짐)됐으며, 불상은 목재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채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회수된 도난 불교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많다"면서 "이런 불교문화재들이 적절한 환경에 보존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보존을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난문화재인 것을 은폐하고 의도적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에 따르면 하단에 제작시기와 봉안처를 기록한 불화의 화기(畵記)를 잘라내거나 사찰명을 지우는 등 훼손이 이뤄졌다. "도난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했고,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라는 게 조계종 문화부의 설명이다.

조계종은 올해 6월 은닉됐던 도난문화재가 몰수되는 판결을 근거로 회수된 성보들이 본래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수된 벽송사 후불도(사진 왼쪽)와 훼손된 화기(사진 오른쪽)의 모습. 불화가 보존 환경이 좋지 않아 경화되고 구겨졌으며, 화기에 사찰명을 의도적으로 지워 도난품임을 은폐하려 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문화부

1988~2004년 도난돼 성보들
前박물관장 A씨 장기간 은닉
올 1월 경매 출품하다가 덜미
경화 · 박락 등 보존상태 '최악'
"성보 관련 선의취득 폐지돼야"

조계종 문화부는 "종단은 현재 확인된 도난 불교문화재가 원래의 사찰로 돌아가 예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제도 폐지 등 도난 예방과 회수된 도난 문화재의 조속한 환지본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장자인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의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 은닉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으며, 올해 6월에는 대법원에서 문화재 은닉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도난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21세기 불교 혁신의 상징 '대행 선사'"

10월 24일 한마음과학원 세미나
대행선사 혁신, 5개 분야로 분석
'심리학' '자연과학' 접목 논문도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4일 '대행 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5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혁신가로 일컬어지는 대행 선사. 선사의 혁신가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불교 발전에 어떤 기여 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재단 이사장)이 10월 24일 '대행 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진행한 제5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서 이문성 위덕대 명예교수는 '대행선사의 혁신가적 특성과 선구적 업적의 혁신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발제를 통해 대행 선사의 혁신가적 면모를 조명하고 업적 중 혁신 분야를 새롭게 분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의 혁신가적 특성을 △연계역량 △질문역량 △관찰역량 △실험역량 △네트워크역량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가 펼친 업적에 대한 혁신성도 도출해냈다. 이 명예교수는 혁신 업적을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포교의 세계화와 현대화 △불교와 과학의 융합으로 나누어 보았다.

세부적으로 △불교의 생활화에는 한마음 주인공 사상과 주인공 관법, 선법가 수행과 포교도구 활용, 거사합창단 창단 등 △불교의 현대화에서는 장엄물 간소화와 신비주의 배척, 일반신도 담선법회 및 법형제회 정기법회 등 △포교의 세계화와 현대화에서는 한마음국제문화원 설립과 현대불교 창간, 해외지원 개설 등 △불교와 과학의 융합에서는 한마음 심성과학연구원 설립과 사회적 실천 및 직무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마음저널 발간 등을 들었다.

이 명예교수는 "이러한 업적은 한마음선원은 물론이고 불교계, 사회, 국가, 세계 차원에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근현대 불교계에서도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산중불교에서의 탈피, 전통의 수호, 불교 현대화 추구와 사회문제 참여로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가 남긴 '혁신'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한마음과학원 원장이자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개인은 개인대로 팀은 팀대로 논문을 준비하기 어려웠을텐데 함께 해가며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논문들이 과학원 과업에 꼭 필요한 논문들이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은 어느 분야서도 안 통하는 곳이 없다. 그 방대한 가르침을 현대 학문과 접목하는 일에 꾸준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번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점검, 가림판 설치 등 방역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마음과학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일부 토론의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 · 비구니회, 협력방안 모색

10월28일 전통문화전승관서
총무원장 주재 첫 연석회의
위상제고 · 교육방안 등 논의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연석회의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과 전국비구니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 1300명을 대변함에도, 친목단체를 넘어서지 못했던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10월 28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비구니회(회장 현중) 임원진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27대 총무원 출범 이후 총무원장 주재로 열린 첫 비구니 연석회의로, 전국비구니회의 종단 내 위상 과제고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열린법석으로 마련됐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27대 집행부는 종헌종법에 따라 모든 종도를 아우르고 함께하는 가운데 종단 안정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 또한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종단관과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성오, 총무부장 도성, 문화부장 원오, 홍보부장 청공 스님이 배석했으며, 전국비구니회 측에서는 회장 현중 스님과 고문 법련 · 공암 스님, 자문위원 지우 스님, 부회장 능인 · 묘련 스님을 비롯한 전국지부 소임자 스님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비구니는 연석회의를 마련해 준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집행부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한데 이어, 비구니회의 종단 내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내놨다.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이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친목도모 차원을 넘어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오늘 자리가 총무원과 비구니회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19 조기종식, 국운융창을 위한
신흥사 영산회상도·시왕도
귀국 환영법회

6·25 전몰 장병 천도재

▶ 일시 : 2020년 11월 9일 9시~13시
▶ 장소 : 신흥사 통일대불
▶ 문의 : 033)636-7044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관 사)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후원 강원도, 속초시, 국외소재문화재단

